

출정전야, '주빈국 행사 성공을 기약하며'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

기획단계부터 현지관계자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 진행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범 사례를 남겨야...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 행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역사(역事)'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큰 행사를 앞두고 연일 초긴장속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있다. 바로 2005년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the Guest of Honor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우창. 이하 조직위)다. 조직위는 문화계, 예술계,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재단법인 형태로 지난해 2월 본격 출범했다. 10월 19일 도서전 개막을 20여 일 앞두고 찾아간 조직위 사무국은 그야말로 출정(出陣)전야의 분위기였다.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준비 과정을 알아보고, 주빈국 행사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봤다.

긴박감 넘치는 분위기...각분야 능력 갖춘 요원들로 구성

경복궁 경내 옛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에 들어있는 조직위 사무실

조직위 중점사업

이번 도서전에서 조직위는, 한국 문화와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출판과 문학 위주의 주빈국관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음악, 연극, 영화, 미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도서전의 핵심인 문학·출판 관련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학·학술과 국제팀은 한국의 책 전시나 한국문학 순회낭독회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전시팀은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홍보팀은 국내외 언론과 기관을 상대로 홍보를 책임지고 있다. 총괄팀은 전반적인 행정과 사업, 예산을 담당하면서 각 팀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현재 총괄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정원 공사, 주빈국관 설치, 아고라광장 행사 준비, 총리 및 주요 게스트의 의견 등이다.

에 들어서는 순간, '긴박감'이란 말이 실감났다. 다들 방문객이 들어서도 눈길조차 주지 못할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분위기였다.

조직위는 문학·학술팀, 국제팀, 공연·전시팀, 홍보팀, 총괄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만수 총괄팀장은 "문화올림픽 주빈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조직위는 출판과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빈국 행사를 도서전 기간동안에만 열리는 단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위 직원은 50명 안팎. 주빈국 행사의 '사령탑'으로 제 몫을 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이나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김 팀장은 "본격적인 도서전 시작 전부터 한국 문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조성해 폐막 이후까지 지속시킬 목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한국문학 낭독회'는 지난 3월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시작으로 독일의 각 도시를 순회하며 현지의 호의적인 반응 속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흔히 도서전이 개막하는 10월에 작가를 파견하여 낭송회를 가졌던 역대 주빈국들과는 처음부터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또 공연전시 분야에선 전통 궁중 의식인 종묘제례악을 연주해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도서전의 핵심인 주빈국관은 '유비쿼터스' Ubiquitous가 주된 컨셉으로 '과거와 미래의 접목'이란 슬로건아래 고인돌에 전자책 등을 설치하여 한국 출판의 발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시행착오 딛고 결실, '독일측과 협력, 원활한 행사 준비'

도서전 개막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면서 조직위는 현지 준비상황

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날도 일부 실무요원들은 미리 현지로 출발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였다. 조직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대체로 모든 준비가 원활한 편”이라고 말했다.

물론 약간의 애로도 없지 않다. 프랑크푸르트시에 기증하게 될 ‘한국의 정원’ 공사가 지난달까지 시작되지 않아 현지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무리하게 개막식 일정에 맞추는 대신, 오는 11월 30일까지 최종 공사를 끝낸 후 12월 7일에 준공식을 하고 개원할 예정이다. 항구적인 기념물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실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총괄팀장은 “한정된 기간 동안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간 크고 작은 난관을 잘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6월 독일 현지 조직위원회와 첫 미팅을 가진 후, 상호 호의와 신뢰 관계 속에 사업을 준비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주빈국관의 컨셉과 각종 문화 행사에 대해 신선하고 독창적이라는 반응을 얻기도 했다.

조직위측은 “초창기엔 공연전시장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랜 논의를 거쳐 서로의 필요와 여건,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솔직히 공유하고 공동 주최 개념으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며 “현지 관계자 및 언론의 반응도 점점 더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전시한후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함께 협의하며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 것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란 것.

김 팀장은 “조직위 내부적으로도 처음 기획 단계에선 수백 가지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서 27가지 사업으로 정리되었고 지금은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두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창기 조직 체제 진통...인적·물적 네트워킹으로 장애 극복

이처럼 모든 일들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직위원장과 구성원 일부가 교체되면서 조직이 다소 흔들렸던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위 사업이 어떤 한 사람의 독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 실무자가 일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현장에선 인적 구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게 조직위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행사일이 다가오면서 여러 기관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만들어낸 인적·물적 네트워킹이 조직위를 뒷받침해준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빈국을 맡았던 아랍연합과 러시아는 내걸었던 슬로건에 비해 실제 전시 내용이 빈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조직위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조직위 홍보관계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는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



막바지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조직위 사무실 풍경.

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조직위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독창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지난달 26일, 현지에 상황실 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40여명의 조직위 직원들이 출국해서 현지에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직위측은 “철저한 대비로 실수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하에 협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므로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조직위의 노하우, 향후 유사한 대규모 행사시 참고할만'

한편 조직위원회가 지난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모집에선 600여명이나 지원해 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최종 선발된 26명은 독일 거주 경험이 있거나 독일어에 능숙하고, 도서전 행사에 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진 이들은 현지에서 안내, 통역, 의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 기간동안 모든 일정과 사업은 물론, 도서전이 끝난후 조직이 해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도서전을 준비하면서 거친 시행착오와 쌓은 노하우들은 문서와 영상으로 저장될 것이고, 그 기록들은 이후 비슷한 행사를 준비할때 훌륭한 운영 매뉴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총괄팀장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올림픽이고 주빈국 행사는 그 규모나 의미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조직위가 그동안 쌓은 소중한 경험들은 일회성 행사로 소모될 것이 아니라 도서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계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취재_김지희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